

12/1(수) 욱기 묵상 24

욱기 15:1-3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15장부터 욱과 세 친구들 사이에 두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논쟁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첫번째 변론(4-5장)에서 했던 말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욱의 주장에 대한 반박(4:1-6)입니다. 둘째,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입니다(4:7-5:7), 셋째, 욱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5:8-27)입니다. 한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가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분량에 있어 줄어들었고 첫번째 변론과 비교해볼 때 '욱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욱의 주장에 대한 반박

엘리바스는 그동안 욱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는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욱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게 됩니다(2-4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욱을 헛된 지식과 무익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즉 엘리바스가 볼 때 욱이 했던 말과 행동은 바로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5-6절,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욱이 고난 중에 고통하면서 쏟아낸 모든 탄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 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욱이 하나님 앞에 거칠게 반항한 것은 그의 불신앙이라기 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고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욱 7:18-19,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욱의 고난은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세 친구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욱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대신 분석하는 일에만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욱의 고난을 소위 '영혼 없이' 위로하고 너무 가볍게 대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질문합니다(7-9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인이라도 된 것처럼 욱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은 엘리바스의 추궁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10-11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엘리바스가 볼 때 욱은 세 친구들보다 지식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차라리 욱이 입을 다물고 지혜로운 조상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많이 알고 있는 자신에게서 겸손히 듣고 배우라고 조언합니다(17-18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들의 최후

엘리바스는 이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사람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깨끗하거나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리고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악인은 그에게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칼날을 두려워하고 음식이 없어 주리며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이러한 운명을 맞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엘리바스는 26절에서부터 15장 마지막 구절까지 다시 한번 악인의 특징과 함께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26-27절은 악인의 삶의 행태가 묘사되고 28절부터는 이러한 악인들의 번영이 오래 가지 못할 것과 더불어 그들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32-35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의 고난은 결국 사람이 죄인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악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과 경험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 당한 자들에게 또는 들을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은 강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괴로울 때는 침묵하고 탄식하며 질문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시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탄식과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높은 신앙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픈 현실을 묵인하거나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렘 20:7-18,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음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고난 중에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엘리바스의 악인과 고난에 대한 해석은 결국 욥이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이지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빗대어서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으며(25절), 목을 곳곳이 세우고(26절), 또 그의 행동의 배후에는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27절)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진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2장에서 그러한 욥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발견할 수 없고 만약 엘리바스가 욥기 3장부터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했던 그의 탄식과 변론을 듣고 그런 확신을 했다면 이것은 부적당한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겸손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북한 땅을 위한 기도:**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옵소서. 또 그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도 이루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3.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 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에 속한 부서 E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